

30 ~ 40대 고소득층, 신용카드 선호

신용카드 이용률, 30대 95%·연소득 6000만원 이상 89.9%... 70대 이상, 100% 현금 사용

주로 30~40대와 고소득층에서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이가 많을수록 현금을 선호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30대의 신용카드 이용경험은 95%, 40대는 93.8%로 집계됐다.

20대(61.9%), 60대(73.9%), 70대 이상(42.8%) 등 다른 세대를 크게 웃돌았다. 50대도 90.8%로 높은 편이었다.

이용건수로는 30대가 신용카드 월평균 14.4건을, 40대도 역시 14.4건을 결제해 전체 연령대 평균(10.7건)과 격차를 보였다.

이용금액으로 봐도 30대는 신용카드 월평균 56만4000원을 썼고 40대는 60만4000원을 써 전체 연령대 평균(41만3000원)보다 많이 썼다.

또 소득이 높을수록 신용카드를 자주 썼다.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신용카드 이용률이 35.1%에 그쳤지만 연소득 2000만~3000만원 구간에선

68.3%로 배 가까이 급증했다. 연소득 3000만~4000만원은 86.5%, 4000만~5000만원은 87.1%, 5000만~6000만원은 88.4%로 점차 늘어났다. 연소득 6000만원 이상에선 89.9%에 달했다.

월평균 이용금액으로도 2000만원 미만은 9만원, 2000만~3000만원은 23만9000원, 3000만~4000만원은 43만2000원, 4000만~5000만원은 45만3000원, 5000만~6000만원은 52만2000원, 6000만원 이상은 62만2000원을 카드로 끊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카드보다 현금을 많이 썼다.

70대 이상은 100%가 현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계좌이체(27.8%), 신용카드(42.8%), 체크·직불카드(30%), 선불카드·전자화폐(1.2%) 등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률은 현저히 낮았다.

월평균 이용건수로도 70대 이상은 현금으로 14.8건을 내 계좌이체(0.7건), 신용카드(3.8건), 체크·직불카드(1.8건), 선불카드·전자화폐(0.1건)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용금액으로도 70대 이상은 현금으로 27만9000원을 썼다. 신용카드(12만8000원)보다 현금을 더 많이 썼다.

계좌이체로는 5만2000원을, 체크·직불카드로는 4만4000원을 냈고, 선불카드·전자화폐로는 한 푼도 안 썼다.

60대도 마찬가지였다. 현금 이용률이 99.8%에 달해 계좌이체(43%), 신용카드(73.9%), 체크·직불카드(4.4%), 선불카드·전자화폐(2.5%)보다 높았다.

소득과 연령을 통틀어 전체적으로는 현금 이용이 99.3%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신용카드(79.1%), 계좌이체(64.1%), 체크·직불카드(56.7%), 선불카드·전자화폐(2.6%) 순으로 이어졌다.

전자지급수단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금결제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높은 셈이다. 한은에 따르면 특히 5만원 미만을 구매할 때 주로 현금이 쓰였다.

장소별로 주로 이용되는 지급수단을 보면, 현금은 전통시장(90.4%)에서 가장 많이 쓰였다. 편의점(55.8%), 슈퍼마켓 및 소매점(56.1%)에서도 현금이 주로 쓰였다.

현금이 주로 쓰이는 장소 외에 모든 곳에서는 신용카드가 주로 쓰였다.

신용카드 사용 비중은 주유소(82.1%)에서 가장 높았고 백화점·대형마트(67.9%), 문화공간(63.4%), 학원(62.4%), 식당·술집(61.1%) 등에서도 신용카드가 가장 많이 이용됐다.

구매품목별로는 식음료품(56.3%) 및 주류·담배(48.5%)를 살 때 현금이 주로 쓰였다. 반면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는 신용카드 이용비중이 가장 많았다.

한편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기반 인터넷쇼핑에서는 신용카드(65.7%)가 가장 많이 이용된 가운데 휴대폰 소액결제(25.2%), 모바일카드(34.2%) 등 다양한 모바일 지급수단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밥의 효능은?" 이규성 농촌진흥청 차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쌀밥이 비만과 당뇨병 등 대사증후군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엔글 GM사장 '내달 20일 부도 처리' 언급... 이유는?

임단협 지지부진하자 '강공' ... "이달 중 잠정합의해야"

한국지엠사태 이후 다섯번째 한국을 방문한 제네럴모터스(GM) 베리 엔글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정부·노조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지엠을 부도 처리하겠다고 4월 20일을 시한으로 내걸었다.

산업은행의 한국지엠 실사가 기대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 합의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데드라인을 설정, 배수진을 칠 필요가 있다는 GM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엔글 사장은 26일 방한 직후 임단협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을 만나 "노조와의 임단협, 정부의 지원 등이 확보되지 않으면 다음달 20일 부도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엔글 사장은 27일 오전에는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만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이인호 산업통산자원부 차관을 만날 예정이다.

엔글 사장은 이 자리에서도 4월에 차입금 만기,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 시한 등이 겹쳐 2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하며 정부 지원 없이는 부도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글 사장이 '부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질적으로 부도를 염두에 뒀다고 보다는 지지부진한 노사협상의 속도를 올리고, 이번 주 중 잠정합의라도 이끌어내기 위해 강수를 뒀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시한으로 '4월20일'을 언급한 것은 정부의 외국인투자지역(외투자지역) 지정과 지원 투자 의사결정 기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엔글 사장은 26일 노조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4월 20일 정도까지는 우리가 자구안을 확정해서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관계자도 "이날까지는 자구안을 마련해 계획서를 제출해야 외부 기업 지정을 검토하고, 실사와 맞들려 지원부족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은 4월 방한 만기 도래 차입금과 희망퇴직 위로금 등 2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GM은 노조와의 협의를 통한 '자구안 마련'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정부 역시 GM의 자구안 이행 확약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GM은 한국지엠에 빌려준 자금을 대한 채권 만기 상환은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직원들의 희망퇴직 위로금, 협력업체 대금 등 4월에 새로 투입돼야 할 자금들이 있고, 자구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이를 지급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차입금 외에도 신규자금 6억 달러(6000억원)가 필요한데,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GM이나 산업은행이 돈을 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GM은 이미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GM 몫은 다 하겠다고 했고, 산은 역시 산은 몫 17%에 해당하는 관련비용을 브릿지론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그 전제조건은 자구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외버스 '예매 간단·편리하게'

국토교통부, 6월말까지 7000여개 노선 대대적 개선

시외버스 이용객이 예매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외버스 예매서비스가 전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2000여개 노선에 대한 시범시행을 거쳐 6월말까지 전체 7000여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외버스 예매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시외버스 예매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버스연합회)의 '버스타고' (이비카드)와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협회(터미널협회)의 '시외버스모바일' (스마트카드)로 예매시스템(예매사이트, 모바일앱)이 이원화돼 별도로 운영돼 왔다.

하나의 예매시스템에서 모든 노선에 대한 운행정보 조회와 예매가 불가능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대부분 노선에서 지정좌석제가 시행되지 않아 표를 구입하고

도 줄을 서서 대기하거나, 전자승차권이 도입되지 않아 인터넷·모바일에서 좌석을 예약하고도 매표창구에서 별도 발권 후 탑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시외버스 예매서비스 개선에 따라 어떤 예매시스템(버스타고, 시외버스모바일)에 접속하더라도 모든 시외버스 노선의 운행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조회된 노선에 대해 예매시스템 이동 없이 예매 및 발권이 가능한 원스톱 예매서비스가 제공된다.

국토부는 이원화된 시외버스 예매시스템을 연계·호환하고 예매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양 예매시스템 운영주체인 버스연합회, 터미널협회, 이비카드, 스마트카드 등이 참여하는 '시외버스 전산망 연계·호환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정좌석제 및 전자승차권이 확대된다.

/최수호 기자

지난해 국내은행 해외점포 순이익·자산규모 ↑

지난해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순이익과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185개사의 순이익은 8억7000만달러로 전년(6억5100만달러)보다 23.9%(1억5600만달러) 증가했다.

8억7000만달러는 우리 돈으로 약 8671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국내은행 순이익(11조2000억원)의 7.7% 수준이다.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은 비이자이익이 31.5% 줄었지만 자산 증가 등으로 이자이익이 16.8% 늘고 대손비용도 62.1% 급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홍콩(1억2400만달러), 중국(1억1100만달러), 인도네시아(1억100만달러), 일본(9200만달러) 순으로 순이익 규모가 컸다.

해외점포의 자산규모도 커졌다.

/최수호 기자

공정위, 웹툰 작가에 갑질 업체 '제동'

앞으로는 웹툰이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는 경우에도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은 작가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웹툰 콘텐츠 가격을 사업자 가입으로 정하지도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웹툰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웹툰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작가와 계약을 맺을 때 웹툰의 영

화·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이나 웹툰 가격을 임의로 정하면서 작가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웹툰 콘텐츠 연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영화·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했다.

/최수호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

